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8. 3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농촌활력팀장	김윤정	☎ 760-75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대비 맞춤형 컨설팅 추진

- 도내 치유농장 5개소 대상...8~9월 농장별 컨설팅으로 인증 준비 지원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준비하는 도내 치유농장 5개소를 대상으로 ‘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대비 컨설팅’을 추진한다.

○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다. 일정 기준을 충족한 치유농장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부여한다.

* 인증기준: 3영역(시설·장비, 인력, 경영·프로그램 운영)

□ 농업기술원은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.

○ 컨설팅은 농가당 2회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 대비해 진행된다. 1차에서는 사업자등록증, 건축물대장,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, 2차에서는 농장을 방문해 시설·장비, 운영규정 및 안전관리 등 인증기준 전반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한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고,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

- 김윤정 농촌활력팀장은 “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”라며 “농장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역량을 높이고, 제주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2026년 현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, 농업기술원은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